

유란시아서

<< [제 81 편](#) | [부분](#) | [내용](#) | [제 83 편](#) >>

제 82 편

결혼의 진화

82:0.1 (913.1) 결혼 — 짝짓기 — 는 남녀의 구별에서 생겨난다. 결혼은 그러한 남녀 구별에 사람이 반응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한편 가족 생활은 그러한 진화하며 적응하는 모든 조정에서 생기는 결과이다. 결혼은 오래 지속하고 있다. 결혼은 생물학적 진화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회적 진화의 기초이며,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것이 확실하다. 결혼은 인류에게 가정을 주었고, 가정은 길고도 힘드는 진화의 투쟁 전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82:0.2 (913.2) 종교 제도, 사회 제도, 교육 제도는 모두 문화가 있는 문명이 살아남는 데 필수이지만, 가족은 사람을 문명화시키는 으뜸 세력이다. 어린아이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인생의 기본의 대부분을 배운다.

82:0.3 (913.3) 옛 시절의 인간들은 아주 부유한 사회 문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다. 이 과거 문명의 대부분은, 가정이 효과 있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다른 제도적 영향과 더불어 계속 진화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인간 종족들은 부유한 사회 및 문화적

유산을 소유하며, 이를 뒤잇는 세대들에게 지혜롭고 효과 있게 전해주어야 한다.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 가족은 유지되어야 한다.

1. 짝짓는 본능

82:1.1 (913.4)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성격 차이가 있는데도, 성욕은 종(種)의 번식을 위하여 남녀가 한데 모이는 것을 보장하기에 넉넉하다. 인간들이 나중에 사랑과 헌신, 결혼의 정절(貞節)이라 부르는 것을 많이 체험하기 오래 전에, 이 본능은 효과 있게 작용했다. 짝짓기는 타고난 성향이며, 결혼은 짝짓기가 사회에 미치는 진화적 영향이다.

82:1.2 (913.5) 성(性)에 대한 흥미와 욕구는 원시 종족들에게 지배적 정열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번식하는 체험 전부가 상상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지 않았다. 높이 문명화된 민족들이 느끼는 정열, 온 몸을 감싸는 성의 정열은 주로 종족이 섞인 때문이며, 관련된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놏** 족속과 **아담** 족속이 진화적 성품을 자극하는 곳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 **안드** 족속의 유전을 진화 종족들이 아주 소량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성(性) 의식과 더 강한 짝짓는 욕구를 부여 받아서 이처럼 일깨워지고 자극 받은, 동물적 정열에 충분한 자제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진화 종족 가운데, **홍인**이 가장 높은 성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82:1.3 (913.6) 결혼과 관계된 성의 규제는 다음을 가리킨다:

82:1.4 (913.7) 1. 문명이 비교적 진보한 것. 문명은 유익한 경로에서, 도덕 관습을 지키면서 성욕을 만족시킬 것을 갈수록 더 요구한다.

82:1.5 (914.1) 2. 어느 민족에나 들어 있는 **안드** 혈통의 분량. 성은 그러한 무리들 사이에서 육체 및 감정의 본질 중에서 가장 높고 낮은 것을 모두 표현하게 되었다.

82:1.6 (914.2) **산직** 종족들은 정상으로 동물적 정열이 있었지만, 이성(異性)의 아름다움이나 육체적 매력을 상상하거나 인식하는 성향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성적 매력이라 부르는 것은 오늘날의 원시 종족들에게도 거의 없다. 혼합되지 않은 이 종족들은 분명한 짝짓는 본능이 있지만, 사회의 통제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성적 매력을 충분히 느끼지 않는다.

82:1.7 (914.3) 짝짓는 본능은 사람을 지배하는, 인간의 육체적 추진력이다. 그것은 개인의 만족을 가장하여, 제 몸의 편안을 찾고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보다 종족의 복지와 영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이기적인 사람을 실질적으로 속이는 하나의 감정이다.

82:1.8 (914.4) 하나의 제도로써 결혼은, 예전에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아를 존속시키는 생물학적 성향이 사회에서 진화한 것을 묘사한다. 진화하는 인종이 영속하는 것은 종족의 이 짝짓는 충동이 존재함으로 확실하게 되며, 이 욕구는 쉽게 말해서 성적 매력이라고 부른다. 위대한 이 생물학적 욕구는 온갖 종류의 관련된 본능과 감정, 그리고 — 육체적 · 지적 · 도덕적 · 사회적 — 관습을 충동하는 축(軸)이 된다.

82:1.9 (914.5) 야만인에게는 먹을 것의 공급이 강제된 동기이지만, 문명이 풍부한 식량을 보장할 때, 성욕은 지배하는 충동이 되는 적이 빈번하며, 따라서 늘 사회의 규제가 필요하다. 동물의 경우에, 본능의 주기(週期)가 짝짓는 성향을 통제하지만, 사람은 대체로 자제(自制)

하는 존재이니까, 성욕이 아주 주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자제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82:1.10 (914.6) 고삐가 풀리고 지나치게 탐닉할 때,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충동도, 이 강력한 성욕만큼 많은 해독과 슬픔을 낳을 수 없다. 이 충동을 사회의 규제에 영리하게 굴복시키는 것은 어느 문명이라도 그 현실성을 재는 최고의 시험이 된다. 자제, 거듭된 자제는, 진보하는 인류의 항상 늘어나는 요구이다. 비밀을 가지는 것, 불성실 · 위선 (僞善)은 성 문제를 눈에 띄지 않게 할지 모르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윤리를 향상시키지도 않는다.

2. 제한하는 금기

82:2.1 (914.7) 결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다만 사회 · 종교 · 국가의 제한이 주는 압력을 통해서 성을 통제하던 역사이다. 자연은 개인을 거의 인식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른바 도덕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연은 오로지, 순전히 종의 번식에만 아랑곳한다. 자연은 강제로 번식을 주장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라고 무관심하게 버려두며, 이처럼 진화하는 인류에게, 늘 따라다니는 주요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 사회적 갈등은 기본적 본능과 진화하는 윤리 사이에 끝없이 벌어지는 싸움에 있다.

82:2.2 (914.8) 옛날 종족들 사이에는 남녀의 관계에 대하여 거의 또는 아무 규제가 없었다. 이 자유로운 성관계 때문에 아무런 매춘이 없었다. 오늘날, 피그미와 기타 뒤쳐진 집단은 아무런 결혼 제도가 없다. 이 종족들을 연구하는 것은 원시 민족들이 따른, 단순한 짝짓기

관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옛 종족들을 모두, 그들 시대의 관습의 도덕 수준에 비추어서 연구하고 판단해야 한다.

82:2.3 (915.1) 그러나 자유로운 성관계는 지독한 야만 수준보다 결코 평판이 더 좋은 적이 없었다. 사회 집단들이 비로소 형성되는 순간, 결혼 법규와 결혼 제한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짝짓기는 거의 완전히 자유로운 성관계로부터 비교적 완전히 성을 제한하는 20세기 수준까지, 여러 번 과도기를 거쳐서 진보해 왔다.

82:2.4 (915.2) 부족이 발전하는 가장 옛 단계에서 도덕 관습과 제한하는 금기는 아주 투박했으나, 이것들이 남녀를 떼어놓기는 했다 — 이것은 평온 · 질서 · 근면을 조장했다 —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오랜 진화가 시작되었다. 성별에 따른 복장 · 치장, 종교 관행에 대한 관습은 이 초기의 금기(禁忌)에 기원이 있었고, 이 금기는 성의 자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따라서 결국 악덕 · 범죄 · 죄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중요한 축제 날, 특히 5월제에는 성(性)에 대한 어떤 제한도 중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풍습이었다.

82:2.5 (915.3) 여자는 언제나 남자보다 더 엄격한 금기에 지배되었다. 초기의 도덕 관습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같은 정도로 성의 자유를 주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충실하는 것이 아내에게 반드시 요구되었다. 원시의 결혼은 남자에게 성의 자유를 크게 줄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내에게 성의 자유를 금했다. 결혼한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 장식 · 옷차림 · 베일 · 은둔 · 치장 · 반지와 같은 어떤 표시를 지녔고, 이것은 한 등급으로서 그들을 따로 구별했다.

3. 옛날의 결혼 관습

82:3.1 (915.4) 결혼은 사람의 그칠 줄 모르는 번식 — 자기를 퍼뜨리는 — 욕구의 긴장, 늘 있는 생물학적 긴장에 사회적 유기체가 제도로 반응하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고, 사회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동안, 그에 따라서 짝짓기 관습이 진화했으며, 이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이다. 사회의 진화가 도덕 관습이 생기는 단계까지 진보하는 곳은 어디에나, 결혼이 진화된 제도로써 발견될 것이다.

82:3.2 (915.5)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터인데, 도덕 관습, 곧 짝짓기의 바깥 면을 규제하는 법과, 그밖에 남자와 여자들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관계이다. 사회가 부당한 성 규제에 맞서 개인은 언제나 반항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성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자아의 유지는 개인에게 일어나지만 집단이 이를 수행하며, 자아의 존속은 사회적이지만, 개인의 충동으로 확보된다.

82:3.3 (915.6) 모든 종족 사이에서 보다시피, 존중되었을 때 도덕 관습은 성욕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결혼의 기준은 언제나 도덕 관습의 현재 힘, 그리고 국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함을 가리키는 참다운 지표였다. 그러나 초기에 있던 성(性) 및 짝짓기에 관한 도덕 관습은 모순되고 투박한 규칙들의 집합이었다. 부모 · 자식 · 친척 · 사회 모두가 결혼의 규제에 이익이 엇갈려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결혼을 높이고 실천한 종족들은 자연히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고, 큰 수가 살아남았다.

82:3.4 (915.7) 원시 시절에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치르는 값이었다.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의 표시였다. 야만인은 결혼하는 날을 책임을 맡고 성년기에 들어가는 표시로 바라보았다. 한 시대에는 결혼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 여겼고, 다른 시대에는 종교적 의무로, 또 다른 시대에는 국가에게 시민을 마련해 주는 정치적 요건으로 생각되었다.

82:3.5 (916.1) 초기의 많은 부족은 흠치는 공적을 결혼 자격으로 요구했다. 후일의 민족들은 그렇게 침공하여 약탈하는 것을, 운동 경쟁과 겨루는 경기(競技)로 바꿔치웠다. 이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는 1등상 — 그 계절에 신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 — 를 주었다. 머리 사냥꾼들 사이에서, 젊은이는 적어도 머리 하나를 소유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두개골은 때때로 살 수 있었다. 아내 사들이기가 줄어들자, 수수께끼 경쟁으로 아내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흑인의 여러 집단 사이에 아직도 남아 있는 풍습이다.

82:3.6 (916.2) 진보하는 문명과 함께, 어떤 부족들은 남자들이 겪는 어려운 결혼 시험을 여자들의 손에 넘겼다. 이처럼 여자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남자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 결혼 시험은 사냥과 투쟁,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능력을 포함했다. 신랑이 적어도 1년 동안 신부의 가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수고하며, 그가 얻으려고 하는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구되었다.

82:3.7 (916.3) 아내의 자격은 고된 일을 해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아내는 농사 일의 어떤 부분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내는 것이 요구되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는 더군다나 값이 있었다. 이렇게 그 여자의 생산 능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82:3.8 (916.4) 옛날의 종족들이 결혼하지 못한 것을 창피나 죄라고도 여겼다는 사실은 아이 결혼의 유래를 설명한다. 사람은 결혼해야 하니까, 이를수록 더 좋은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영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 또한 널리 퍼졌고, 이것이 태어날 때조차, 때때로 낳기 전에, 성별에 달려 있지만,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추가된 동기였다. 옛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다. 최초의 중매쟁이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결혼을 협상하려고 고용되었다. 이 중매자들이 죽은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한 부모가 주선하곤 했다.

82:3.9 (916.5) 후일의 종족들 사이에서는 사춘기가 결혼하는 보통 나이였으나, 문명의 진보에 비례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졌다. 사회의 진화에서 일찍부터 특이한 독신 계급의 남자와 여자들이 생겨났다. 정상의 성욕이 얼마큼 모자라는 개인들이 이 계급을 시작하고 유지했다.

82:3.10 (916.6) 많은 부족이 신부를 그 남편에게 주기로 된 날 바로 전에, 통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신부와 성관계를 허락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소녀에게 선물을 주곤 했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기원이었다. 어떤 집단에서는 젊은 여자가 자기 지참금을 벌 것이라 기대하였고, 이것은 신부를 전시하는 방에서 신부가 성교 서비스에 대한 값으로 받은 선물로 이루어졌다.

82:3.11 (916.7) 어떤 부족들은 젊은 남자를 과부와 늙은 여자에게 결혼시켰고, 나중에 홀아비가 되었을 때, 젊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곤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표현한 대로, 그들의 생각에 두 젊은이가 짝짓도록 놓아 둘 경우처럼 양쪽 부모가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다. 다른 부족들은 짝짓기를 비슷한 나이 또래로 제한했다. 어떤 나이 집단에 결혼을 제한한 것이 근친 상간(相姦)

개념을 처음으로 낳았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하는 데 아무런 나이 제한이 없다.)

82:3.12 (916.8) 어떤 도덕 관습 밑에서는 과부를 크게 두려워했고, 과부는 남편의 무덤에서 죽음을 당하든지 자살하도록 허락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배우자와 함께 영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은 것은 거의 변함없이, 살아 있는 과부의 탓으로 돌렸다. 어떤 부족들은 과부를 산 채로 태웠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살면, 대체로 재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여자의 인생은 계속 애도하고, 견딜 수 없이 사회의 제한을 받는 인생이었다.

82:3.13 (917.1) 옛 시절에는 지금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많은 관습을 장려하였다. 원시의 아내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사(情事)를 벌이는 것을 크게 자랑으로 여기는 일이 뜸하지 않았다. 소녀에게 순결은 결혼에 큰 방해물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 낳을 수 있는 동반자를 남자가 가진 것이 확실하니까, 아내로서 그 소녀를 더욱 바람직하게 만들었다.

82:3.14 (917.2) 많은 원시 부족은 여자가 아이를 배기까지 연습 결혼을 인가했으며, 아이를 가졌을 때 정식으로 결혼식이 거행되곤 했다. 다른 집단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부모가 여자를 돌려받아야 했고, 결혼은 취소되었다. 도덕 관습은 모든 부부가 아이 가질 것을 요구했다.

82:3.15 (917.3) 이 원시의 연습 결혼은 전혀 방종과 비슷한 데가 없었다. 이것은 다만 진지한 생산력의 시험이었다. 계약하는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입증되자마자 영구하게 결혼했다. 현대의 부부가, 머리의 뒷전에서 결혼 생활에 온전히 만족하지 않으면 편리하게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할 때, 그들은 실제로 일종의 연습 결혼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보다 덜 개화된 조상들이 정직하게 모험하는 위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결혼이다.

4. 재산 관습과 결혼

82:4.1 (917.4) 결혼은 언제나 재산 · 종교와 가깝게 연결되어 왔다. 재산은 결혼을 안정시키는 장치요, 종교는 결혼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장치였다.

82:4.2 (917.5) 원시의 결혼은 투자요, 경제적 투기(投機)였다. 불장난하는 일이 아니라 사업하는 문제였다. 옛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결혼했다. 따라서 집단, 곧 부모와 장로들이 그들의 결혼을 계획하고 주선했다. 그리고 재산 관습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결혼이 많은 현대 민족보다, 초기의 부족들 사이에서 더 오래 갔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82:4.3 (917.6) 문명이 진전되고 사유 재산이 관습에서 더 인정받음에 따라서, 도둑질은 큰 범죄가 되었다. 간통은 일종의 도둑질, 남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초기에 있었던 법규와 도덕 관습에서 간통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서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의 권리를 딸의 남편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합법적 성관계는 이 기존 재산권에서 생겨났다. 구약(舊約)은 여자를 일종의 재산으로 다룬다. **코란**은 여자들이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남자는 아내를 친구나 손님에게 빌려줄 권리를 가졌고, 이 관습은 아직도 어떤 종족들 사이에서 유행한다.

82:4.4 (917.7) 성에 대한 현대의 경계심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화하는 도덕 관습의 산물이다. 원시인 남자는 아내를 잃을까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제 재산을 지키고 있었다.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엄격하게 성(性)을 책임지게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부정(不淨)이 자손과 상속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행진에서 아주 일찍부터 사생아는 평판이 나빴다. 처음에는 여자만 간통으로 벌을 받았다. 나중에 도덕 관습은 또한 여자의 상대도 책망할 것을 선포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인 남편이나 보호자인 아버지는 침해한 남자를 죽일 온전한 권리가 있었다. 현대의 민족들은 이 관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불문을 밑에서 이른바 정절을 침해한 범죄를 인정한다.

82:4.5 (917.8) 순결의 금기가 재산 관습의 한 단계로서 기원을 가졌으니까, 이 금기는 처음에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되었어도 결혼하지 않은 소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후일에는 구혼자보다 아버지가 순결을 더 요구했다. 처녀는 아버지에게 장사의 재산이었다 — 처녀는 값이 더 비쌌다. 순결이 더 요구되자, 남편이 되려는 자를 위하여 순결한 신부를 적절히 기르는 서비스를 인정하는 뜻으로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치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일단 시작되자, 여자의 순결을 지키는 이 생각이 종족들에게 꽉 들어박혀서, 처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녀들을 글자 그대로 장 속에 가두는 것, 실제로 몇 년 동안 잡아 가두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그래서 그후의 기준과 처녀성 시험은 자동으로 전문 창녀 계급을 낳았다. 그들은 퇴짜맞은 신부, 처녀가 아닌 것이 신랑의 어머니한테 들킨 여자들이었다.

5. 동족 결혼과 족외 결혼

82:5.1 (918.1)

아주 일찍부터 야만인은 종족의 혼합이 자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관찰했다.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반드시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반드시 비교해서 더 나았다. 따라서 도덕 관습은 가까운 친척 사이에 성관계를 제한하도록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족외 결혼이 진화적 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선택하는 기회를 크게 늘인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족외 결혼으로 생긴 사람들은 더 능력이 있고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더 컸다.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자들은, 그들의 도덕 관습과 함께, 차츰 사라졌다. 이것은 모두 천천히 일어났고, 야만인은 의식해서 그런 문제를 따져보지 않았다. 그러나 후일의 진보하는 민족들은 따져보았고, 또한 부족 안의 결혼이 지나치면 때때로 일반적 결점이 생긴다는 것을 관찰했다.

82:5.2 (918.2)

좋은 핏줄을 가진 자들의 근친 교배가 때때로 강력한 부족을 세우지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들의 근친 교배로 나쁜 결과가 생기는 놀라운 경우는 사람의 머리에 더 강하게 인상을 주었고, 그 결과로서 진보하는 도덕 관습은 갈수록 더, 아예 가까운 친척 사이에 결혼을 막는 금기를 형성했다.

82:5.3 (918.3)

종교는 오랫동안 족외 결혼을 막는 효과적 장벽이었다. 많은 종교적 가르침은 신도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자는 보통 족내 결혼, 남자는 족외 결혼 풍습을 더 좋아했다. 재산은 언제나 결혼에 영향을 미쳤고, 때때로, 재산을 한 씨족 안에서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아버지의 부족 안에서 남편을 고르라고 여자에게 강요하는 관습이 생겼다. 이런 종류의 판결은 사촌(四寸)의 결혼을 크게 번성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기술의 비밀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안에서 짝짓는 관습을 지켰다. 숨씨 있는 직공들은 가진 기술의 지식을 가족 안에서 지키려 하였다.

82:5.4 (918.4) 우수한 무리들은, 고립되었을 때 언제나 같은 혈족끼리 짝짓기로 되돌아갔다. **노트** 족속은 15만 년이 넘도록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큰 집단 중의 하나였다. 후일의 족내 결혼 관습은 보라 인종의 전통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보라 인종의 경우 처음 짝짓기는 어쩔 수 없이 형제와 자매 사이였다. 형제와 자매의 결혼은 옛날 **에집트 · 시리아 · 메소포타미아**에, 그리고 **안드** 족속이 한때 차지했던 땅에 두루, 보통이었다. **에집트**인은 왕족의 피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노력으로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관습을 오랫동안 지켰고, 이 관습은 **페르시아**에서 더 오래 지속되었다. **아브라함** 시절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인 사이에서는, 사촌 결혼이 의무였다. 사촌은 사촌과 먼저 결혼할 권리가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은 배다른 누이와 결혼했지만, 그러한 연합은 후일에 **유대인** 관습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82:5.5 (919.1) 형제 자매 사이의 결혼을 처음으로 그만둔 것은 다처(多妻) 관습 하에서 생겼는데, 이는 누이인 아내가 다른 아내나 아내들을 도도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관습은 죽은 형제의 과부에게 장가드는 것을 막았지만, 살아 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를 위하여 자식을 낳아 주기를 요구했다. 어떤 정도라도 안에서 결혼하는 데 저항하는 생물학적 본능은 없다. 그러한 제한은 전적으로 금기의 문제이다.

82:5.6 (919.2) 남자가 두둔했기 때문에 족외 결혼이 마침내 지배했다. 바깥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인척들로부터 더 큰 자유를 얻을 것을 보장했다. 친숙은 경멸을 낳는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 요인이

짝짓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부족 바깥에서 짝을 고르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82:5.7 (919.3) 많은 부족은 마침내 씨족 안의 결혼을 금했으며, 다른 부족들은 어떤 카스트와 짝짓는 것을 제한했다. 자기 토템의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금기는 여자를 이웃의 부족에서 훔치는 관습을 촉진하였다. 나중에는, 친척 관계보다 오히려 영토에 거주하는 것에 따라서 결혼을 규제했다. 족내 결혼이 현대의 족외 결혼 관습으로 진화한 데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금기가 서민에게 족내 결혼을 막는 것에 근거를 둔 뒤에도, 추장과 왕들은 왕족의 핏줄을 모으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관습은 보통 군림하는 통치자에게 성 문제에서 어떤 자유를 허락했다.

82:5.8 (919.4) 후일의 **안드** 민족들의 존재는 **산깁** 종족들이 자신의 부족 바깥에서 짝지으려는 욕구가 증가한 것과 많이 상관이 있다. 그러나 이웃 집단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배우기까지, 족외 결혼은 유행될 수 없었다.

82:5.9 (919.5) 족외 결혼 자체가 평화를 추진한다. 부족들 사이의 결혼은 적대 행위를 줄였다. 족외 결혼은 부족의 조정과 군사(軍事) 연합으로 이끌었다. 힘을 키워 주기 때문에 족외 결혼이 지배하게 되었고, 족외 결혼이 국가를 세웠다. 모험과 탐험은 짝짓는 범위를 연장하는 데 기여했고, 종족 문화의 교류를 크게 수월하게 만들었다.

82:5.10 (919.6) 종족의 결혼 관습에서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점은 대체로, 이 족외 결혼 관습과 그에 따른 아내 훔치기, 그리고 다른 부족으로부터 아내 사들이기 때문이며, 이 모두가 독립된 부족 관습의 혼합을 초래하였다. 족내 결혼을 막는 이 금기가 사회적이요 생물학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단계의 사돈 관계, 곧 아무런 핏줄

관계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친척 사이의 결혼을 막는 금기에서 잘 나타난다.

6. 종족의 혼합

82:6.1 (919.7) 오늘날 세상에 순수한 민족은 하나도 없다. 옛날에 진화된 최초의 유색 민족들 가운데 세상에서 오직 두 가지 대표 민족, 곧 황인과 흑인이 지속하고 있다. 이 두 종족조차 멸망한 유색 민족들과 많이 섞여 있다. 이른바 백인 종족이 주로 옛날의 청인으로부터 내려왔으나, 백인종은 두 **아메리카**에 있는 홍인처럼, 모든 다른 종족과 얼마큼 섞였다.

82:6.2 (919.8) 여섯 가지 유색 **산악** 종족 가운데, 셋은 1차이고 셋이 2차였다. 비록 1차 종족 — 청인 · 홍인 · 황인 — 이 여러 면에서 세 2차 종족보다 우수했어도, 이 2차 종족은 많은 바람직한 특성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상급 핏줄을 흡수했더라면 1차 민족들이 어지간히 향상되었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82:6.3 (920.1) “반(半) 카스트,”^[84] “잡종,” “튀기”에 대한 오늘날의 편견은, 현대의 종족 교배가 대체로, 관계된 종족들 안에 심하게 열등한 핏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생긴다. 너희는 또한 같은 종족의 퇴화된 핏줄이 서로 결혼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자손을 얻는다.

82:6.4 (920.2) 오늘날의 **유란시아** 종족들이, 그들의 가장 낮은 층에 저하되고 반사회적이고 박약하고 버림 받은 종자들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얼마큼 종족을 혼합시키는 데 거의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종족 혼합이 몇 종족에서 가장 높은 부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면, 반대는 더군다나 적을 것이다.

82:6.5 (920.3) 우수한 이질 혈통의 교배는 새롭고 더 활력 있는 핏줄을 창조하는 비결이다. 이것은 식물 · 동물 · 인종의 경우에 참말이다. 혼혈은 활력을 증가시키고 생식 능력을 높인다. 여러 민족의 평균이나 우수한 층에서 종족의 혼합은, 북 **아메리카**의 미국의 현재 인구에서 보다시피, 창조 잠재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러한 짝짓기가 낮거나 열등한 계층 사이에서 일어날 때, 오늘날 인도 남부의 민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조성이 줄어든다.

82:6.6 (920.4) 종족의 혼합은 새 특징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크게 기여하며, 그러한 혼혈이 우수한 핏줄의 연합이면, 이 새 특징은 또한 우수한 특성이 될 것이다.

82:6.7 (920.5) 오늘날의 종족들이 열등하고 퇴화된 핏줄로 인하여 지나치게 부담을 받는 한, 대규모의 종족 혼합은 아주 치명적일 터이나 그런 실험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생물학적 고려보다 사회 및 문화적 편견에 근거를 둔다. 열등한 핏줄 사이에서도, 잡종은 흔히 그 조상들보다 낫다. 우성 인자의 기능 때문에, 혼혈은 종의 개선을 낳는다. 종족의 상호 혼합은 혼혈 속에서 바람직한 우성 인자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

82:6.8 (920.6) 몇천 년 동안에 일어났던 것보다, 지난 1백 년 동안에 **유란시아**에서 종족 혼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혈통을 이종(異種) 교배하는 결과로서 생기는 심한 부조화의 위험은 크게 과장되었다. “혼혈아”의 주요한 문제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82:6.9 (920.7) 백인과 **폴리네시아** 종족을 섞는 **핏트케언** 실험은 그 백인과 **폴리네시아** 여자들이 꽤 좋은 종족 혈통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성공했다. 가장 높은 부류의 백인 · 홍인 · 황인 종족 사이에서 교배하는 것은 새롭고 생물학적으로 효과 있는 많은 특징을 즉시

낳을 것이다. 이 세 민족은 1차 **산직** 종족에 속한다. 백인과 흑인 종족 사이의 혼합은 당장의 결과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흑백 혼혈의 자손은 사회 및 종족의 편견이 이를 못마땅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못마땅하지도 않다. 신체적으로, 그러한 흑백의 혼혈은, 어떤 다른 면에서 조금 못하기는 해도, 인류의 탁월한 표본이다.

82:6.10 (920.8) 1차 **산직** 종족이 2차 **산직** 종족과 혼합할 때, 전자가 희생되는 값으로 후자는 어지간히 개량된다. 작은 규모로 — 오랜 기간에 연장될 때 — 1차 종족이 2차 집단의 개량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으로 기여하는 데 심각한 반대가 거의 있을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2차 **산직**들은 어떤 면에서 1차 종족들보다 우수했다.

82:6.11 (921.1) 결국, 인종의 진짜 위협은, 종족이 서로 교배하는 데 따르는 어떤 상상하는 위험보다, 오히려 문명화된 여러 종족 중에 열등하고 퇴화된 핏줄이 마구 번식하는 데서 발견될 것이다.

82:6.12 (921.2) [유란시아에서 주둔하는 세라핌의 우두머리가 발표했다.]

[84]: 82:6.3 반 카스트는 백인과 **힌두** 교도나 회교도 사이의 혼혈아를 말한다.
